열린사회의 적, 색깔론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송두율 사태'를 계기로 색깔론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색깔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념적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색깔론은 특정 세력에 의해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정상적인 이념 갈등과 다르다. 색깔론은 이념구도의 왜곡이 가져온 현대 한국 정치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한국에는 보수가 없다. 다만 그 자리를 냉전수구세력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념의 위치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1950년대의 진보와 오늘날의 진보가 다르듯이, 중국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도 다르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이념의 객관적 위치는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극우라고 호칭할 때, 그것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그의 오른쪽에 아무도 없으면 극우이고, 왼쪽에 아무도 없으면 극좌다. 한국의 이념 지도에서 제일 큰 문제는 맨 오른쪽에 특권을 가진 세력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색깔론은 시대와의 불화

색깔론은 이분법에 익숙하다. 친북과 반북이라는 기준이다. 북한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많이 변화해 왔다. 이제 북한체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야 할 대상이며, 경제적으로 실패한 체제이고 사회적으로 다원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공존공영을 하기 위한 변화의 대상이다. 문제는 변화의 방법론이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다.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봉쇄와 압박으로 붕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색깔론은 북한에 대한 시각과 변화의 방법론을 구분하지 않는다. 방법론의 차이를 사상의 차이로 둔갑시킨다.

노무현 정부 들어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 대한 색깔론이 대표적인 시대착오의 사례들이다. 이들은 북한체제를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판해 온 대표적인 북한 연구자들이다. 서동만 박사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195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체제가 국가화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종석 박사 역시 1967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유일체제화 되면서, 역사 발전의 동력을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색깔론은 이들의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체제 변화론'을 친북 논리로 단순 규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만약에 색깔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들의 논문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아마도 '친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색깔론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송두율 사건 이후 '내재적 접근' 방법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내재적 접근 방법이란 송두율 교수도 정확히 인용했지만, 칸트의 '경험비판적 인식 방법'을 일컫는 개념이다. 하나의 지역 연구로서 북한을 선험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 연구자치고, 자신이 선험적으로 북한을 연구한다는 학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내재적 접근이란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가 공감하는 당연한 접근 방법이다. 물론 송두율 교수의 문제도 있다. 송두율 교수는 초기에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내부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역지사지' 혹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 정도다. 이후 국내 북한 연구에서는 과연 '행위자 진술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

란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종석 박사는 연구자의 비판적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내재적 ·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동시에 송두율 교수가 이후 내재적이라는 단어를 선험적과 대비되는 경험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논란은 정리되었지만, 과연 송두율 교수의 북한 분석이 얼마만큼 내재적 접근 방법에 충실했는지는 많은 연구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국내 북한 학계의 수용은 그렇듯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정리되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송두율 교수 사태 이후 내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학자들이 친북학자로 둔갑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작금의 사태는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내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친북이라면, 그 개념을 처음 사용한 철학자 칸트가 친북성향이란 말인가? 200년 전에 사망한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친북성향이 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아니면 말고' 식의 많은 소동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색깔론은 이렇듯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의 색깔론은 특정세력에 의해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정상적인 이념 갈등과 다르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사상 검열에 열중하는 이들의 사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특이한 사상의 소유자들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비극은 '보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민족적 보수'란 개념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지만, 한국에는 있다. 보수적인 '민족주의 담론'이 한국에서 진보로 분류되어 왔던 것은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의 산물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아직도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는 애국심도 없다. '애국심이 없는 보수', 말이 안 되지만 한국에는 있다. 광복절 날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과연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라크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무조건 대규모로 전투병을 파병해야는 한다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들에게 종합적 국익에 대한 판단은 없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다 변화되고 있는 국제경제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수주의자가 되려면, 최소한 변화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위치를 현대적으로 재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념적 위치의 동결은 시대와의 불화를 의미한다. 일부 신생 극우단체들의 '테러리즘적 경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서로 다른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화되어야 한다. 특이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거대 언론을 통해, 혹은 국회의 특권을 이용해 '아주 오래된 기준'으로 분열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대표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 언론도, 정치도, 이른바 지식시장도 시대와의 불화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이 색깔론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에는 언제쯤 진정한 보수 세력이 나타나 건전한 이념경쟁을 할 수 있을까?